

"3퇴" 와 평안

제 107 기

《9 평공산당》 책은 진실하고 정확하게 중공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였다. 2013 년 1 월 23 일까지 이미 1 억 3 천 1 백 84 만 중국민중이 해외 대기원 인터넷 사이트에 중공의 당, 단, 대에서의 탈출을 성명하였다.

말레이시아에서 1억 3천만 용사들이 중공에서 탈출한 것을 성원했다



2013 년 1 월 6 일 말레이시아 탈당복무 센터에서는 칼라룸푸르의 유명한 쇼핑구역 성광대도(星光大道)에서 1 억 3 천만 용사들이 중공의 당, 단, 대 (간칭하여 “3 퇴”)에서의 탈출을 성원하는 집회를 거행했다. 대변인 채선생은 지적하기를 “중공의 해체는 눈앞에 다가왔으며 우리는 중국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신이 모두 분노하는 중공악당의 죄행을 반대하는 것이다.”.

중공이 1921 년에 세워진 이래 거짓말로 중국인민을 기편하고

폭력으로 정권을 탈취했으며 나라를 훔친 후 63 년의 피비린 폭정은 중화민족과 더 나아가서 세계에 심각한 재난을 가져다 주었다.

이외 중공의 통치는 하늘을 거스르고 도를 배반하여 생태환경에 심중한 파괴를 조성했고 독성식품이 범람하고 있으며 도처에 가짜 상품이 널려 있고 사회도덕이 파괴되고 료락상실되었다. 중공사당은 또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고 폭리를 도모하여 세인들을 놀래웠으며 이것은 “이 성구에 종래로 없었던 사악이다.”◇

인간세상 곳곳에 신의 기적이 있다

무신론자인 친구가 나에게 물었다 : “눈앞에 있는 차잔에서 당신은 어떤 것이 신의 기적인가를 보아낼 수 있는가?”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 “차잔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차잔을 만든 원료는 흙이다. 하지만 흙은 신이 사람을 위해 만들어준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금속, 물등 흙이 아닌 물질로 흙을 만들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차잔 뿐만아니라 광범한 대지 및 광활한 해양 곳곳에서 신의 기적을 보아낼 수 있다.”

수련인을 놓고 말하면 세간의 산과 물 초목은 모두 고급생명이 인류에게 부여한 물질이며 세간에서 발생한 모든 일에서 모두 신의 기적을 보아낼 수 있다. 다만 무신론자들은 관념의 저어로 하여 사물의 본질을 인식할 수 없을 따름이다. (문 / 관명) ”

오스트레일리아 매체 편집: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진상을 전파하는데 도움주려 한다

【명혜망】 2013 년 1 월 5 일 오스트레일리아주 멜본(墨尔本)에서 중국사람이 모여 살고 있는 글렌웨이버리(格兰韦弗利) 구역 쇼핑센터의 주요거리 옆에서 당지 파룬궁 수련생들은 포어, 전시판과 진상자료를 리용하여 민중들이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하는 폭행에 주목하고 아울러 박해제지에 도움줄 것을 호소했다. 인터넷 잡지 《독립 오스트레일리아》의 편집인 테스 • 로렌스는 중공이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생체 적출한데 관하여 진행한 조사와 장악한 증거를 자세히 료해했다. 그녀는 수련생들을 요청하여 《독립 오스트레일리아》에 원고를 써서 계열문장을 발표하여 민중들에게 중공의 박해를 폭로하려 하였다.◇



봉쇄를 넘어 세계를 보면 바깥은 더욱 정채롭다: 해외전자 우편으로 freeget.ip@gmail.com 전자우편을 보내면 10 분내에 몇개 IP 주소를 얻게 된다.인터넷 봉쇄를 돌파하고 명혜망에 오르면 www.minghui.org 더 많은 진상을 알수있다! 동태망 표지에서 자유문, 무계등 각종 “봉쇄를 넘는” 프로그램을 내려 받으면 이후 인터넷에 오르기 더욱 편리할 것이다.

대련의 한 파출소 소장은 탈당하고 아울러 공안악인을 검거했다

대련의 한 파출소 소장은 탈당하고 아울러 공안악인을 검거했다

대련의 한 파출소 소장은 해외 탈당자원봉사자한테서 걸려 온 진상전화를 받았다. 자원봉사자는 그에게 즉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멈추고 이 몇년래 정법계통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하여 악보를 받은 자가 이미 2 만 여명이 된다고 알려주었다.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중국은 자고로 신주(神州)라는 이름이 있었으며 백성들은 석자 머리위에 신령(神靈)이 있다고 한다. 북경에 있는 천단(天坛)은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혼례식을 치를 때도 천지신령에게 절을 올린다. 공산당이 오자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하면서 무신론으로 중국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중국 5 천년의 신전문화를 파괴해버렸으며 당신들더러 그것을 따라 불법(佛法)을 박해하는 제일 나쁜 일을 하게 했다. 로자는 말했다 :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처럼 따라 다니며 가까이로는 자신이 보응받고 멀리로는 자손들이 보응받는다.

이 소장은 말했다 : 13 년이에요. 안건이 많아요. 그럼 내가 빨리 불태워버리면 되나요?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 절대로 태우지 마세요. 그것은 모두 중공이 박해한 증거이니 보존해 두세요. “추적조사국제” (파룬궁 박해를 추적조사하는 국제조직) 에 검거 전화를 걸어 거기에서 딱딱히 말하면 역시 안전하며 거기에서 당신에게 증명을 서줄 것이예요. 그는 추적조사국제전화번호를 상세히 기록했다.

하루속히 박해를 제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는 그가 적극적으로 박해 내막을 폭로하고 파룬궁을 박해한 악인을 검거할 것을 희망했다. 소장은 한 공안국 국장과 한 “610”(전문 파룬궁을 박해하는

불법기구) 주임이 파룬궁을 박해한 악행을 말했다. 이 두 악인의 진짜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고 하자 이 파출소 소장은 망설이였다.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오직 박해한 죄악을 폭로해야 만이 비로서 사악의 발생을 유효하게 제지할 수 있어요. 당신들은 중공을 따라 큰 악행을 하였으니 자신을 구하려면 탈당을 제외하고 또 마땅히 검거적발해야 돼요. 당신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할 것이예요. 하지만 누가 하면 누가 자신을 위하여 속죄하는 것이기에 일찌기 하면 일찍 속죄되고 많이 하면 많이 속죄돼요. 형세를 똑똑히 보아야 하며 자신을 구할 기회는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파출소 소장은 공안국 국장과 “610”주임의 진짜 이름을 말했다.

로공안: “그까짓 탈당이 아닌가요, 탈출할래요 !”

【명혜망·대륙에서 온 소식】 40 여년간 만나지 못하였던 L 씨는 지금 외지 모시 공안국에서 사업하고 있었다. 늦가을의 어느 하루 친구의 전화를 받았다. L 씨가 또 돌아왔는데 돌발성 뇌경색으로 병원에 누워있다고 했다. 내가 병원으로 그를 보러 갔을 때 그가 입원한지 3 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를 보니 전혀 내가 상상하던 모습이 아니었으며 얼굴부터 사지까지 마치 정상적인 사람과 같았으며 정말로 회복이 너무 빨랐다.

나는 그에게 : 성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를 읽으면 대법사부님께서 당신을 관할할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는 말했다 : 많은 사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해요. 원래 전날에 병문안을 온 친구중에 한 분은 역시 대법제자였는데 그에게 이 한마디 말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같은 병실의 환자친구마저 그에게 이 말을 하였다. 그러기에 그

가 이렇게도 빨리 회복되었던 것이다.

몇일 후 나는 또 병원에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틀전에 그는 퇴원했으며 의사선생은 그의 회복은 아주 빨랐다고 말했다.

그의 집에 갔을 때 나는 말했다 : 도처에서 진상을 볼 수 있으며 돈에도 “하늘이 중공을 멸하니 당.단.대에서 탈출하면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써여져 있어요. 내가 말을 멈추기도 전에 L 씨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까짓 탈당이 아닌가요, 탈출할래요!” 그의 아내 역시 공안계통에서 사업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말했다 : 당신도 탈출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 “좋아요, 탈출할래요!” 오기 전에는 그들의 사업성질을 우려했는데 생각밖에 이렇게 통쾌히 탈출했다.

몇일 후 L 씨의 자문전화를 받았다. “당신들에게 공법을 말한 책이 있지 않나요”. 원래 그들 부부는 파룬궁 진상 CD 를 보면서 단지 CD 속의 련공동작을 따라했을 뿐인데 신체의 변화를 느꼈다. L 씨가 몇년 전에 상했던 다리는 운동할 때면 늘 아팠는데 요몇일 갑자기 그다지 아프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여 그들은 절박히 대법을 료해하려 했고 련공하려 했던 것이다.◇



대법수련은 나로 하여금 "죽지 않는 암"에서 벗어나게 했다

【명혜망】 나는 정년퇴직한 교사이며 남자이고 금년에 70 살이다. 나는 원래 줄곧 농촌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으며 1993 년에 어린 외손을 보살피러 성시로 왔다.

1989 년 가을 나는 일종의 기이한 병에 걸렸다. 하루는 아침에 일어나니 온몸이 불편했고 두손의 여러 관절은 모두 부어 있어 손을 펴고 쥐기가 불편했다. 몇달 후 온몸의 관절은 거의 다 부었으며 병세는 갈수록 심해졌다. 이웃들은 모두 병문안을 왔다가 말했다. 우리 마을의 모모는 바로 이런 병에 걸렸었는데 도처에서 의사를 청하였어도 치료할 약이 없어 고통스럽게 몇년을 지낸 후 죽었다……, 가족들은 나를 걱정하면서 나의 병치료를 위하여 도처로 다니면서 의사를 청하였다.

병이 발생해서부터 나는 주사를 맞고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멈추지 않았다. 서약, 중약이나 주사는 처음에는 모두 효과가 있어 병통을 완화시켰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갈수록 효과가 없었다. 후에 “전형적인 풍습성관절염(典型的类风湿关节炎)” 진단을 받았다. 당시 이런 병은 아주 적었으며 후에 나는 또 다른 병원에 갔었는데 원장



그림: 2012 년 12 월 29 일과 30 일, 이태리 파룬궁 수련생들이 년말 단체련공을 하고 있다. 파룬궁은 오늘까지 이미 세계 백여개 나라와 지역에 전해졌다.

선생은 나에게 알려주었다. 얼마전에 그는 국제 풍습병 연구토론회에 참가했었는데 회의에서는 목전 국제상에서는 아직 풍습치료에 현저한 효과가 있는 특수약이 없기에 이런 병을 “죽지 않는 암(不死的癌症)” 이라고 일제히 인정했다. 이후 나는 철저히 실망하여 더는 도처로 의사를 청하러 다니지 않았다.

나의 병은 신속히 악화되어 손가락 손목과 앞팔이 변형하고 위축되어 통증은 더욱 심해졌다. 온 몸은 밤낮으로 참기 어려운 병통으로 하여 정말로 하루가 일년 같았으며 병통의 시달림은 나로 하여금 삶의 희망을 저버리게 하

였다.

1995 년 나는 행운스럽게 대법을 얻어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나는 자신의 세계관이 모두 변화된 것을 발견했으며 이로부터 나는 자신을 엄격히 요구하면서 대법의 “편싼련”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려 했다. 심성이 부단히 제고됨에 따라 나의 신체 통증은 점점 사라졌으며 관절도 붓지 않았고 펴수 있어 반년도 안되는 사이에 나는 고질병에 걸린 폐인으로부터 젊은 사람처럼 변하여 자전거를 타도 날아 다니는 것 같았으며 충계를 오르내리는 것이 자유롭고 힘들지 않았다. 나는 진정으로 병없이 온 몸이 가벼운 맛을 보았다.

파룬따파가 나를 구해주었고 자비롭고 위대한 리홍지 사부님께서 나를 사망직전에서 구해주었다. 천마디 만마디로도 사부님에 대한 나의 감격의 마음을 표달할 수 없다. 나는 오직 대법의 “편싼련”의 요구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더욱 좋은 사람이 되며 추호의 동요없이 대법수련을 견지하여야 만이 사부님께서 구해주신 은혜를 저버리지 않을 수 있다.
(문 / 하북대법제자 난춘) ◇



정치와 관계없다



“정치”란 오늘 사회에서는 보통 인간의 사회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서방에서 강조하는 인권, 3 권분립이며 사회의 상대공평을 유지하는 것이다.

지금 중국사람들이 말하는 “정치”란 마르크스주의 개념이며 국가를 진압의 공구라고 선전하며 어떻게 사람을 진압하고, 어떻게 사람을 살해하고, 괴롭히고 통제하는 것을 연구하는데 그 속에는 음모계계를 제외하고는 다른 것이 없다.

수련이 추구하는 것은 정치와는 전혀 다르다. 수련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우주의 진상을 료해하는 것이고 어떻게 자신 생명의 높은 경지로 되돌아가는가 하는 것이다.

수련과 정치는 하나는 우주진리, 어떻게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을 탐구하는 것이고 하나는 인간에서 자신의 사욕을 위하여 어떻게 사기치고 사람을 기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련과 정치는 혼

동하여 말할 수 없다.

파룬따파 수련자는 중공의 잔혹한 박해앞에서도 민중들에게 진상을 말해주는 것을 꾸준히 견지하였으며 사람들에게 “하늘이 중공을 멸한다”는 천기를 알려주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말 속에서 명석해지고 광명한 미래를 선택하게 하였다. 이것이 바로 정법수련자가 고난속에서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대선대인의 도덕경지의 체현이다.◇

"남주"사건에서 중공이 파룬궁에 대해 먹칠한 선전을 생각하다

【명혜망】새해 첫 시작에 《남방주말》의 신년헌사(献词)를 광둥성위 선전부 관원이 뜯어 고쳐 전국성 사건으로 전해졌다.

이번 선전부에서 매체를 억압한 사건이 폭로되자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 모르게 중공이 매체를 조종하여 파룬궁에 하늘땅을 뒤엎듯이 먹칠한 선전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런 문화대혁명을 재현하는 장면은 오늘까지도 기억이 생생하다. 당시 권력을 틀어쥔 추물 강택민이 자신의 사욕때문에 매체를 조종하면서 이번의 인성을 멸절하는 운동을 도발하여 대량의 국력과 재력을 소모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중국의 신문, 법제 및 중국사람의 도덕을 암흑의 깊은 골짜기로 떨어뜨렸다.

강택민이 매체를 조종하여 파룬궁에 먹칠하고 문화대혁명식의 박해를 발동했다

1999년 10월 25일 강택민은 불란서 《르피가로(费加罗报)》 취재를 접수할 때 파룬궁을 ×교(파룬궁은 사람에게 선량함을 향하도록 가르치며 중공이야말로 진정한 사교이다)라고 모욕했다. 다음 날 대변인 매체 《인민일보》는 바로 《“파룬궁”은 ×교》라는 문장을 발표했다. 강택민이 리지를 잃고 퍼붓은 욕설은 번듯이 사론으로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로부터 또한 헌법을 릉가하였고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정치운동의 극단으로

떠밀어 올렸다.

강택민은 매체를 빌어 파룬궁에 먹칠하면서 한차례 모든 국력을 기울인 정치운동을 벌였고 군대, 경찰, 국가 안전부, 매체, 사법, 외교등등이 모두 이 속에 참여했다. 발표된 소식에 의하면 오늘까지 이미 한차례 전쟁의 비용을 소모했다고 한다. 이로하여 권력이 커진 정법위원회에서 온정을 유지하는데 쓰는 경비도 해마다 증가되어 군비의 지출을 초월했다.

파룬궁을 박해하였기에 법률은 제멋대로 짓밟히고 사법은 제일 부패한 시기로 룬락되었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그 어떠한 법률 절차도 거치지 않고서 로교소에 보내졌고 세뇌반에 보내어 강제로 세뇌당하였을 뿐만아니라 또한 법을 왜곡한 판결로 감옥에 갇혔다. 그런 법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을 위하여 무죄변호한 정의의 변호사마저도 억압을 받았다.

더욱 사람을 놀라게 하는 것은 바로 인성을 멸절하는 생체 장기적출인데 그것이 사람을 놀라게 하는 정도는 “이 성구상에서 종래로 없었던 사악”으로 불리우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죄다 매체에서 사슴을 말이라면서 흑백을 전도하는 증오선전과 갈라 놓을 수 없으며 그중에서도 가장 사악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은 중공이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연출

한 “천안문 분신자살 위조안건”이다.

천안문 분신자살 위조안건은 대변인 매체의 제일 큰 검은 내막을 밝혀 놓았다

2001년 1월 23일 강씨 집단이 날조한 천안문 분신자살 안건은 파룬궁에게 들쭉우려 한 것이다. 중앙텔레비전의 초점방단에서 이 사건을 방송했다. 초점방단의 록상을 느린 화면으로 돌리면서 분석한 것을 통하여 수두룩한 허점들이 발견되었다.

량지를 수호하고 진상을 전파하자

민중은 지정권과 자유로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이 역시 신문자유인 한 부분이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자신이 참혹한 박해를 받고 있는 정황에서도 줄곧 부단히 사실의 진상을 전파하고 있다. 전단지, 전화, 문자, 팩스를 막론하고 모두 민중의 기본 권리를 수호하는 것이다. 더욱이 중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진상 텔레비전 삽입방송은 더더욱 대중의 것을 인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쟁취하는 대지대선(大智大善)의 행위이다. 하지만 이것은 본래 응당 매체의 직책이다.

진상을 전해야만이
세계는 비로서 희망이 있다
량지를 수호해야 만이
인류는 비로서 미래가 있다
(문 / 정선) ◇



그림: CCTV의 분신자살 화면: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휘발유를 담은 록색 비닐음료 병사리는 열화속에서 의외로 아무런 손상도 받지 않았다. 경찰은 열화탄자를 들고 왕진동의 몸 뒤에서 기다리면서 그가 카메라 화면을 향해 이른바 “파룬궁 구호”를 외치자 비로서 열화탄자를 던졌다. 도대체 열화인가 아니면 연극인가? 2001년 8월 14일 분신자살 기편국은 련합국 회의에서 폭로되었으며 국제교육발전 조직에서는 중공의 국가 공포주의 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성명에서는 : 록상분석에서 표명하였는바 옹근 사건은 정부가 한 손으로 연출한 것이라고 했다. ◇